

4년만의 광주 현장국감... 복합쇼핑몰 등 질타 예고

오늘 행안위...화정동 붕괴사고·광주형일자리 등 쟁점 될 듯 의원 11명 참여...시에 요구서 343개·자료 1002건 요청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20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광주 시청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감은 2018년 이후 4년 만으로, 복합쇼핑몰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날카로운 질타 등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다만 그동안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상당수 국감

의 경우 '덕담 형식의 봐주기식' 행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시 국감도 기존처럼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다.

19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청에서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기본소득당 1명 등 국회 행안위 감사 2반 소속 11명 의원이 참여

해 국정감사를 연다. 국감의원들은 광주시 국감과 관련해 343개 요구서(자료)와 1002건의 세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국감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요약해보면, 복합쇼핑몰 유치 상황을 비롯한 지산 IC 미개통, 군공항 이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광주시 서구청에서 행정 조처한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건축허가 반려' 결론을 이상한 논리로 뒤집은 것(광주일보 10월 4일자 1면)과 관련해 광주시의 후속 조치 등을 묻는 질타도 예상된다.

광주서부경찰이 최근 관련 행심위 위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된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한 법무담당관이 지난 주 사의까지 표명했는데도, 광주시에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에 이어 지난 1월 발생한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 지난 8월 보육원 출신 10대 2명 사망 등과 관련한 질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

별모터스(GGM)의 지속성, 안전 문제로 개통하지 못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 처리 방안 등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는 이번 국감에서 복합쇼핑몰 유치 과정에서 국가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2달여간 국감 의원들이 요청한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했다"면서 "4년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들께 사랑을 나눠요

19일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열린 독거어르신 '마음나눔 도시락' 봉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회원들이 우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이번 도시락 나눔행사는 다음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우산근린공원에서 도시락 400개를 나눠줄 계획이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여수산단 현장 안전점검

여수국가산단에 잇따르는 안전사고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19일 여수산단에서 산업부, 환경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상민 행정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함께했으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뤄졌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회사 자체 안전예방을 위한 활동을 정취하고 사외배관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연에 참여했다.

한화솔루션 TDI 공장에서는 안전사고 현황 및 사고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현장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산단이 세계적 화학산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크루즈 운항 재개... 전남도, 세계 관광객 유치전

여수서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마트' 미주 선사 등 100여개 업체 참여

전남도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 하선 관광이 오는 24일부터 허용되면서 전남도와 크루즈 업계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여수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남관광재단과 공동으로 크루즈 유치를 위한 글로벌 행사인 '2022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마트'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전남도-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주, 아시아권의 국제크루즈선사 관계자와

국내 기항지 지자체, 크루즈 선사 등 100여 업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해외 글로벌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한 여수·제주·부산·인천·속초·서산 등 기항지 유치 설명회와 국내외 크루즈 업체 및 지자체 간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상담회로 진행됐고 각 부스마다 열린 상담이 이어지면서 최근 크루즈 관광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전남-여수 크루즈 산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크루즈 관광 세미나도 열려 여수의 크루즈 산업 발전 전략과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크루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남의 크루즈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마트의 여수시 개최를 발판으로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외 크루즈 선사 등과 적극 협력하고 기항지 프로그램 다양화, 준모항 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전남도를 세계적 크루즈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글로벌'에 참석해 글로벌 럭셔리 크루즈 실버시 3항차 기항을 유치하는 등 해외 크루즈 입항 재개를 앞둔 선제적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현장서 면접·채용 '4060 일자리 잡는 데이'

전남중기진흥원, 내일 조선업 등 20개 기업 50여명 채용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 행사가 열린다. 20개 기업이 현장에서 면접해 바로 50명 이상을 고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1일 오후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컨벤션홀에서 '4060 신중년 일자리 잡(JOB)는 데이(DAY)'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과 조선 관련 기업 등 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중 10곳은 미리 50여 명 채용계획을 발표해 현장에서 채용 예정이고, 나머지 10곳은 현장에서 구인 정보를 게시해 입사 신청을 받는다.

'4060 신중년 맞춤형 채용행사'는 일방적인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으로 이

어지는 특징이 있다. 신중년 구직자는 행사장 현장에서 채용정보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고, 현장에 마련된 면접 채용관에서 1대1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될 수 있다. 이밖에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 촬영과 구직자 힐링을 위한 심리상담 테라피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에 전화 사전접수를 하거나 당일 면접복장을 갖추고 이력서를 지참해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정은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인생 2막 시작을 위해 취업을 바라는 신중년 구직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